

목 장 예 배

2025 년 7 월 전반기

제목 / 바울의 거듭남

본문 / 사도행전 9:1-9 / 찬송 438 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말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종교는 인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에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철저한 신본주의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지

인간으로 향하는 내게로 향하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 장 2 절 말씀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거듭남의 체험은 정신적 육체적 진통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 이후입니다.

바울은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 주변에는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9:5)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곧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하면서 행동하지만 그 일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9 절 끝부분에 '그가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으로 큰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려운 신앙적 문제도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겁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 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 다시 보게 되리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 없으며 그 앞에 무너지지 않을 마음이 없습니다. 뚝뚝하고 학식 많았던 율법주의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 스스로 고백합니까?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좋은 복음을 우리 목장에, 나의 가정에, 이웃에게,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전합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말씀과 함께하는 나눔

1.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것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2. 신앙생활의 익숙함에 젖어 변화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멈추고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7 월의 나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성수 사 박재운 곡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아주많이
 - 요 - 사랑합니 다 나의예수 님 사랑합니
 다 그것뿐예 요 사 랑 한 다 아 들 아
 내 딸 아
 내 가 너 를 잘 아 노 라 - 사 랑 한 다 아 들
 내 딸
 아 네 게 축 복 더 하 노 라 -

Copyright (C) 1995 김성수, 박재운.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